

정책협의로 사업 완성도 높인다

진안군·전북연구원, 주요 현안사업 상호 토론회 정책협의회 가자

진안군(군수 전춘성)과 전북 싱크탱크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24일 군청 상황실에서 지역권 친환경 산림 고원 조성 등 군정 주요현안 사업의 추진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지문 및 상호 토론회를 통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새로운 도시 진안의 미래 먹거리 산업과 휴식과 힐링, 치유에 초점을 맞춘 관광산업 등 중점사업에 대한 검토와 제안을 거듭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나갔다.

특히, 참석자들은 지역권 친환경 산림 고원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및 통과를 위한 논리개발과 대체단백질로서 미래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의 2023년 공모를 앞두고 중앙부처에 대한 설득 노력 강화에 초점을 모았다.

권혁남 전북연구원장은 "진안군은 대전·통영, 익산·장수 등 동서남북 고속도로 인접해 접근성이 좋고, 금남호 남장택의 경계를 이루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친환경 산림고원 및

지방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며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적극 살려 진안군의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경쟁력 있는 국책사업을 발굴하는데 전북연구원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춘성 진안군수는 "오늘 정책협의회를 통해 우리 군이 지속적이고 긴밀하게 전북연구원과 소통하며 정책을 발굴하고 완성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 지역 현안과 군의 주요사업추진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진안군, 유관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등 훈련역량 강화

진안군은 24일 마이산관광정보센터에서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안전한국훈련은 발생 가능한 각종 재난 유형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 점검과 재난 초기 대응체계 및 실천 대응 역량 강화, 국민의 대응능

력 향상을 위해 매년 범국가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이다.

전춘성 군수 주재로 실시된 이날 훈련은 지진으로 인한 건물 붕괴 및 대형화재를 가정한 실제훈련으로 진행됐다.

특히 13개 협업부서와 진안소방서, 진안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 각자의 임무와 역할을 점검하는 한편 초기대응 및 수습단계의 단계, 국민체험단 참여 등 민간역할 확대, 재난 상황 보고, 재난 안전 통신망 활용 등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사전에 대비해 훈련역량을 강화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재난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니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재난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 부서별 역할 숙지,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강화를 통해 지역의 재난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무풍면 오산마을회관 준공식 가자

무주군은 24일 무풍면 오산마을회관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된 무풍 오산마을회관은 마을회관 정비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주민들의 화합과 휴식공간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군은 24일 무풍면 오산마을회관 준공식을 가졌다.

일조하는 공간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주민들은 "오늘 준공된 마을회

관에서 마을주민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마을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음식물쓰레기 지엽적 수거는 청정 무주에 걸림돌"

무주군의회 이영희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무주군의회 제20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이영희 위원장이 무주군의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정확히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지역 주민이 철저히 분리수거해주면 전처리 시설에서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어 요금 부과를 자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영희 위원장은 "군민과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어르신들은 쓰레기 봉투값을 아끼고자 집에서 소각하고 음식물쓰레기는 뒷밭에 묻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보니 화재위험이 생길뿐더러 기온이 올라가면 발 주변에서 냄새가 나고 각종 벌레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버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으면 전염병을 발생시켜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영희 위원장은 "야산 골짜기에는 버려진 전자제품들이 많은데 수거업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지금처럼 나뭇잎이 떨어지면 불쌍사나운 모습이 보인다"며 무주군이 청정지역을 강조하는 만큼 쓰레기 수거 업무도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복합문화도서관에 어린이 공간 마련해야"

무주군의회 최윤선 위원

무주군의회 제20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최윤선 위원이 현재 건축 중인 복합문화도서관에 어린이 공간이 부족하다며 가족이 함께 즐기는 공간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는 복합시설로서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무주군의 여러 시설에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복합문화도서관은 아이들이 놀고 학습할 수 있는 적지"라고 말했다.

최윤선 위원은 관내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은 무주의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실내공간이 없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도서관 평면도를 확인해보니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많지는 않다. 어린이자료실,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 대여소 정도인데 이정도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면 안 된다.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즐기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계북면 행복나눔터' 준공

장수군은 24일 최훈식 군수를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계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추진한 '계북면 행복나눔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48억원을 투입해 계북면 행복나눔터 건립과 종합복지관 리모델링 등 시설을 완료했으며, 지역역량강화사업인 걷기지도사, 스로즈마사지사 전문가 육성교육, 어린이 놀이학교 등을 2023년까지 추진한다.

계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주민의 복지서비스 공간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 지역역량 강화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계북면 행복나눔터'에는 아동돌봄공간인 다함께 돌봄센터, 계북 출신의 병장인 박춘실 기념관, 작은 도서관, 문화카페, 다목적실, 주민활동공간 등이 마련돼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군은 지난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총사업비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보건의료원, 소중한 생명 살릴 수 있는 교육 실시

장수군보건의료원은 24일 군청 군민회관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관리책임자 및 교육희망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기기 사용법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장수군 보건의료원은 심장지 등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올바른 대처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 30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24일에 진행된 교육은 전북대학교병원과 연계해 응급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과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기본원리 등을 교육용 장비를 이용해 현장감 있는 실습 위주로 진행했으며,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 상황별 응급처치요령 등을 교육했다.

심폐소생술은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주는 응급처치법으로 심정지 발생 후 4분이 경과되면 뇌가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받기 때문에 심정지를 목격하면 즉시 시행해야 효과가 높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와 병행해서 사용해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 실시계획 수립

장수군은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장수1지구, 장수2지구, 노하1지구(2,786필지, 91만 3071.8㎡)를 선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3개 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주민공람·공고를 통해 의견 수렴 후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 발송, 주민설명회 개최 등 사전 준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도면에 등록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사용과 국민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장수=고판호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